

농어촌공사 울산지사, 집중호우 대비 배수장 집중 점검

✎ 오정은 기자 | ㉠ 승인 2025.08.08 14:53

손홍모 지사장, 배수장 현장 방문
배수펌프 작동·전력 공급 체계 등
침수우려지역 비상대응 종합 확인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는 주말 집중호우를 대비해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배수장 4개소를 점검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지사장 손홍모)는 주말 집중호우를 대비해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배수장 4개소를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호우와 집중강우가 잦아짐에 따라, 농업기반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배수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다.

손홍모 울산지사장은 직접 현장을 찾아 배수펌프 작동 상태, 전력 공급 체계, 제진기 작동 상태 등 침수

우려 지역의 배수장 가동 준비 상황과 비상 대응 체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호우 주의보 발효 시 즉각 가동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점검을 마쳤다.

한국농어촌공사 울산지사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시설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여름철 기상 상황에 맞춘 발 빠른 선제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오정은 기자 oje@iusm.co.kr